

# 전남 기관·단체 “목포대·순천대 단일 의대 추진 환영”

## 양 대학에 “단일 의대 설립까지 두 손 모아 힘차게 펼 것 당부” 정부·의료계에 “도민 30년 염원 국립 의대 신설로 화답해주길”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권 ‘공동 단일 의과대학’ 추진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전남 지역 각계 기관·단체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노인회와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서비스원, 강진·순천의료원, 전남도 광역치매센터 등 전남 보건·복지 분야 기관·단체 39곳은 3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 단일 의대 추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양 대학에는 “단일 의대가 설립되는 날까지 두 손 모아 힘차게 뛰어 줄 것”을, 정부와 의료계에는 “전남도민의 30년 염원과 바람을 국립 의대 신설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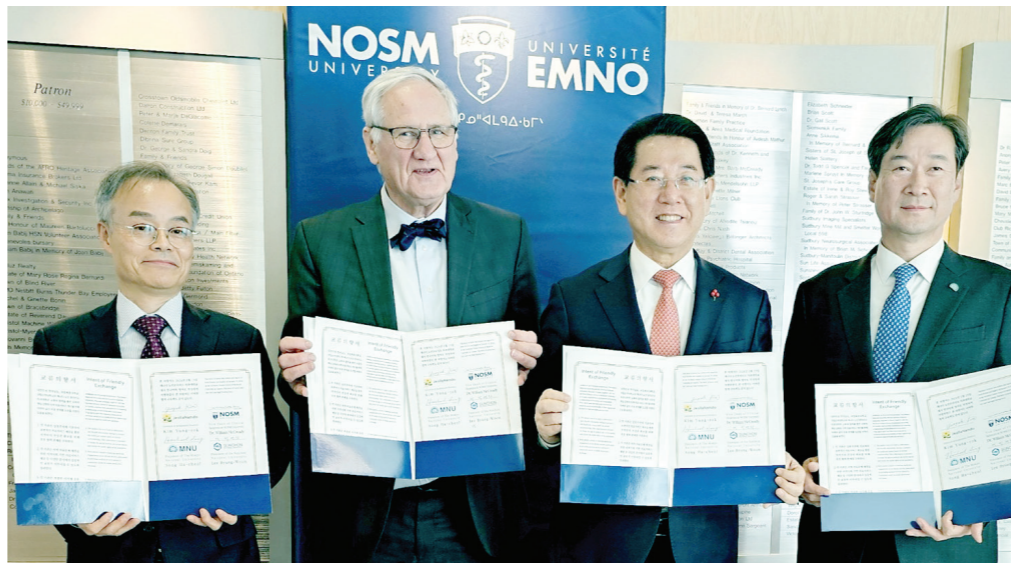
전남지역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사

회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 큰 결정에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 뒤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도새마을회와 전국이동장연합회 전남지부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귀남 전남새마을회장은 “전남 도민은 오랜 세월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명과 수명이 좌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이동장연합회 김상모 전남지부장도 “전남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으로, 의료 취약계층 비중은 높음에 반해 필수의료 기반이 열악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NOSM) 선더베이 캠퍼스를 방문,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 노하우 등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환자가 많다”며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변용일 기자

# 전남 전국 첫 공유재산 특감, 숨은 재산 8000억원 찾았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감사를 통해 숨은 재산 8000억 원을 발굴했다.

누락 자산이 3만 건을 훌쩍 넘겼고, 골프장과 리조트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도 적잖았다. 지적자산도 사실상 방치되면서 재산권이 아예 소멸될 경우가 1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재정 확충에 단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선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을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도와 시·군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에 대한 특감사를 실시해 22개 시·군에서 3만1164필지, 8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모두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가 발견됐고, 이 중 27.9%가 누락 필지로 확인됐다.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나누시가 38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양시(1153억 원), 순천시(483억 원), 무안군(394억 원), 함평군(378억 원), 여수시(326억 원) 순이다.

또 관리 부실로 특허청(KIPRIS) 등록이 누락 또는 잘못 등록되거나 재산권이 아예 소멸된 지적재산권도 1939건으로,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중인 전체 지적재산권(2773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소멸된 재산권만 122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중인 골프장, 리조트, 레미콘 업체에는 3억8343만 원의 변상금(6년치) 부과 처분 등이 내려졌다. 필지로는 165필지에 달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선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총액인 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고층군과 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일선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지식센터가 도내 기업과 손잡고 무허가 특유로 화장품을 개발, 연간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 캐릭터를 활용해 1조58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점을 우수 사례로 적극 벤치마킹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개발수요 등으로 국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유 재산을 교환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고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 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또 폐교 등 유휴건물 67곳과 유휴토지 54곳을 활용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맞춤형 활용권고안을 제시했다.

오유나 기자

# 전남 노후 관광지 새단장 “3곳 선정, 60억 투입”

## 2018년부터 243억 원 투입...14개소 재생사업 추진

전남도가 올해 노후 관광지 3곳에 60억 원을 투입해 새단장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관광지 27곳과 관광특구 2곳 등 모두 29곳 중 19곳이 지정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낡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최신 트렌드에 뒤떨어져 관광객

발걸음이 뜸한 상황이다.

이에 시·군 공모를 통해 노후 관광지 3곳을 선정, 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정비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광전

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한 곳당 20억 원(도비 50%·시·군비 50%)을 지원한다.

서류심사는 관광지의 매력도와 계획의 적정성, 관광객 만족도 제고, 주민 참여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지고, 현장평가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추진 의지, 현지 적합성 등 3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도는 2018년 화순 도곡온천을 시작으로 담양호 탐방로 데크 개·보수, 영암 성기동 한옥체험관과 배수로 정비, 장성호 전망대

리모델링 등 2023년까지 243억 원을 투입해 14곳의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추진 중인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관광지마다 필요시설과 콘텐츠 등 세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해 추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시·군과 협조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노후 관광지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 기자

# KT-모토브, AIoT 기반 모빌리티 사이니지 구축 호남 확대 ‘시동’



KT와 ㈜모토브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모토브(대표 임우혁)와 30일 KT광주타워에서 ‘AIoT(AI of Things) 기반 빅데이터 수집 및 모빌리티 스마트 사이니지(광고용 모니터) 구축’ 시장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모토브는 에지(Edge) 인공지능(AI) 기반 어반테크 기업으로 IoT·미디어 이동체 장치를 택시 지붕에 장착, 위치 기반 디지털옥외광고(DOOH) 및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수집·분석을 통해 제곱해 스마트 시티 운영에 활용하는 도시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에 2000대의 DOOH 전광판 설치 택시를 운용 중으로, 이동체 장치는 광고 기능 외에도 AI 카메라, 온도, 미세먼지, 자외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탑재돼 실시간으로 도시의 다양한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oT 이동체 장치의 사업기회 상호 공유 및 사업 공동 추진 ▲AIoT 이동체 장치 및 플랫폼을 활용한 관련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KT는 AIoT 이동체 장치의 KT 통신망 검증과 기술 지원을 비롯해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초정밀 위치관제 및 클라우드 등 인프라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토브 임우혁 대표는 “KT의 앞선 초정밀 위치 추위와 온 디바이스 AIo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디바이스를 공동 개발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전남전북법인과객본부장 김용남 상무는 “KT의 앞선 기기센싱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모토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AI와 IoT기반 빅데이터 및 모빌리티 사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한국연금진흥재단  
Korea Pension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월	1.1배	1.7배	2.1배
3월	2.1배	2.7배	5.3배
2월	48,103원		
1월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험료 159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